

葬禮儀式場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完)

金永德

(주) 한진종합건축사사무소

Report/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ng
of Funeral Ceremony Hall
by Kim, young-Duk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근래에 와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장례의식을 주거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사망자수도 급증할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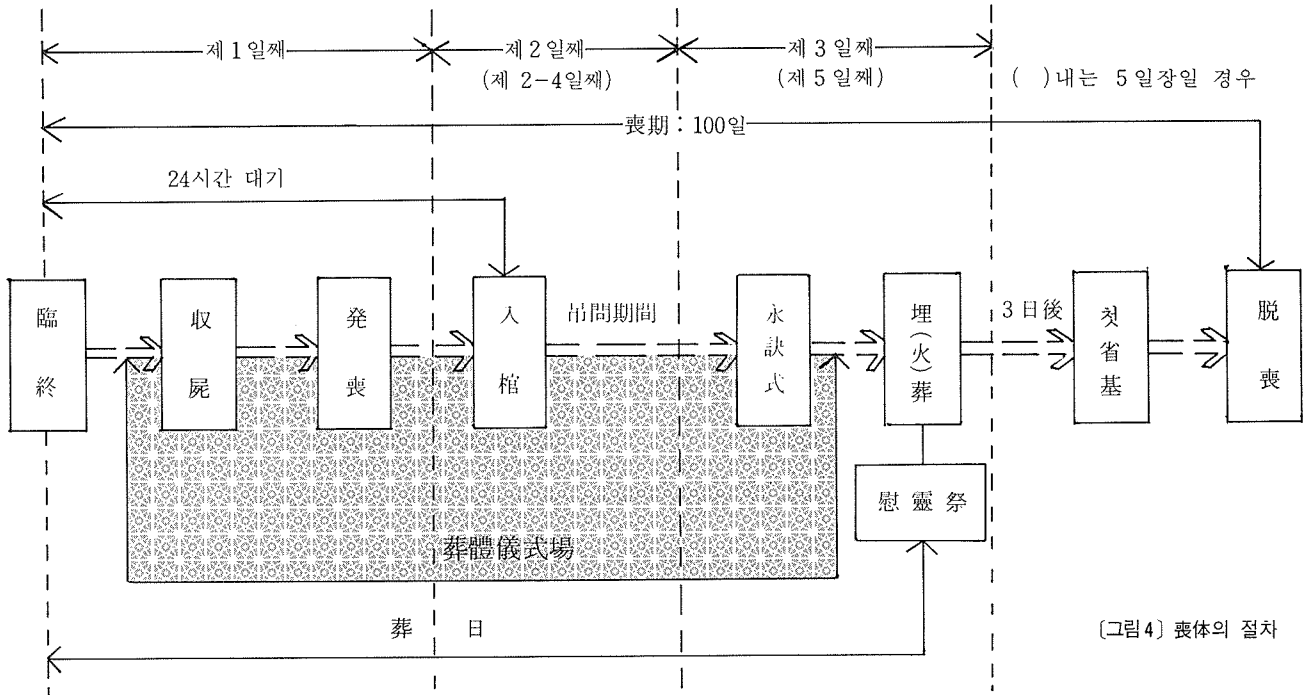
Ⅲ. 葬禮儀式場的 建築計劃

葬禮儀式場的 건축계획을 위하여 喪禮와 葬禮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喪禮와 葬禮의 절차

喪禮란 臨終에서 脫喪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고, 葬禮란 臨終에서 埋(火)葬까지의 의식절차이다. 이 절차는 각 종교마다 그 의식이 복잡하고, 가문이나 지방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다. 또 國葬, 社會葬 등 儀典節次는 따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치루는 喪禮를 기준하고자 한다. 사람이 임종하면 收屍를 하고 발상이 되어 친지들에게 訃告한다. 운명후

24시간 경과후에 入棺을 하고 靈座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과 銘旌을 세우고 문상객을 맞는다. 의식을 치루다가 發靱時, 永訣式을 행하고 靈柩車로 葬地로 운구한 후에 매(화)장을 한뒤 慰靈祭를 지낸다. 3일후에 첫 성묘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추모제사를 지내다가 탈상함으로써 그 의식절차는 끝난다. 상례를 치루는 기간을 喪期라고 하고, 장례를 치루는 기간을 葬日이라고 한다. 종래에는 喪期는 부모상일 경우에는 3년, 장일은 최하 7일부터 3~9개월까지 장례를 치루었으나 가정의례준칙에서는 喪期는 100일, 葬日은 5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상례와 장례의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 4) 喪體의 절차

2. 設問調査에 의한 建築적 要求分析

● 葬禮를 치른 場所

(시)부모의 葬禮를 치른 經驗者를 대상으로 하여 葬禮를 치루었던 장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명중 「자택」이 54명(87.1%), 「병원 영안실」이 8명(12.9%)으로 대다수가 葬禮를 자택에서 치루고 있다. <표13 참조>

● 葬日

(시)부모 장례시 經驗했던 葬日은 「3일장」이 61명의 응답자중 55명(90.2%)으로 가장 많고 <표14 참조>, 희망하는 장일은 57명의 응답자중 55명(96.2%)으로 역시 「3일장」이 가장 많았다. <표15 참조>

● 問喪客數

(시)부모 장례시 弔問하였던 문상객수는 응답자 61명중 「100명 이하」가 24명(39.4%), 「101~200명」이 17명(27.8%)으로, 「200명 이하」가 41명(67.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16 참조>

●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은 1사람의 응답자가 몇개의 문항을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바, 『자택에서

치른 경우」에는 응답자 97명중 「공간이 좁았다」가 36명(37.1%), 「음식장만」이 25명(25.8%), 「묘지선정」이 13명(13.4%), 「행정적인 수속」이 9명(9.3%), 「문상객의 안내가 어려웠다」가 7명(7.2%)의 순이었고, 『병원 영안실에서 치른 경우」는 「공간이 좁았다」와 「음식장만」이 6명(35.3%), 「행정적인 수속」이 4명(23.5%), 「묘지선정」이 1명(5.9%)이었고 「문상객의 안내」에는 응답이 없었다. <표17 참조>

● 葬禮儀式場의 종교별 분리
葬禮儀式場의 종교별 분리에 대한 의견은 「완전 분리」가 35명(37.6%), 「층별 혹은 칸막이 분리」가 31명(33.3%), 「필요없다」가 27명(29%)이었다. <표18 참조> 이를 종교별로 분석하여 보면 無宗教人은 「완전분리」가 12명(28.6%), 「필요없다」가 14명(33.3%), 「층별 혹은 칸막이 분리」가 16명(38.1%)이다. 基督教人과 불교인은 「완전분리」를 희망하였다. <표19 참조>

● 殯所의 區劃

殯所의 區劃은 응답자 94명중 「독립적 區劃」이 34명(36.2%)이고 「형편에 맞게

<표 13> (媳)父母葬禮時 葬禮를 치루었던 場所

구분	빈도	N	%
자택		54	87.1
병원영안실		8	12.9
계		62	100

<표 14> 經驗했던 葬日

구분	빈도	N	%
3일장		55	90.2
5일장		4	6.6
7일장		2	3.2
계		61	100

<표 15> 희망하는 葬日

구분	빈도	N	%
1일장		1	1.9
2일장		1	1.9
3일장		55	96.2
계		57	100

<표 16> (媳)父母葬禮時 문상객수

구분	빈도	N	%
100이하		24	39.4
101명~200명		17	27.8
201명~300명		7	11.5
301명~500명		7	11.5
501명 이상		6	9.8
계		61	100

〈표 17〉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

구분	장소		병원영안실에서 치른 경우 (총 응답자 93명)		병원영안실에서 치른 경우 (총 응답자 8명)	
	빈도	N	%	N	%	
공간이 좁았다		36	37.1	6	35.3	
음식장만		25	25.8	6	35.3	
묘지선정		13	13.4	1	5.9	
행정적인 수속		9	9.3	4	23.5	
문상객의 안내		7	7.2	0	0	
불편이 없었다		7	7.2	0	0	
계		97	100	17	100	

〈표 19〉 장례의식장의 종교별 분리 필요에 대한 종교, 무종교인의 의견

구분	빈도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N	%	N	%	N	%	N	%
완전분리 건립		12	28.6	12	46.2	7	50	3	33.3
분리가 필요하다		14	33.3	7	26.9	4	28.6	4	44.4
층별 칸막이로 분리		16	38.1	7	26.9	3	21.4	2	22.3
계		42	100	26	100	14	100	9	100

〈표 21〉 장례의식장 외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N	%
빌딩같은 외관		4	4.3
성당이나 교회같은 외관		39	41.9
주택같은 외관		10	10.8
무엇인가 상징적인 외관		37	39.8
아무래도 상관없다		3	3.2
계		93	100

〈표 22〉 종교별 장례의식장의 건물 외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N	%	N	%	N	%	N	%
빌딩같은 외관		2	4.8	0	0	0	0	0	0
성당·교회와 같은 외관		10	23.8	18	69.2	4	28.6	6	66.7
주택과 같은 외관		5	11.9	2	7.7	2	14.3	1	11.1
상징적인 외관		22	52.4	5	19.2	8	57.1	2	22.2
아무래도 상관없다		2	4.8	1	3.9	0	0	0	0
실용적으로		1	2.3	0	0	0	0	0	0
계		42	100	26	100	14	100	9	100

〈표 18〉 장례의식장의 종교별 분리 필요도

구분	빈도	N	%
완전분리하여 건립한다		35	37.6
그럴 필요가 없다		27	29
위치는 같더라도 층별, 칸막이로 분리하면 된다.		31	33.3
계		93	100

〈표 20〉 빈소의 구획

구분	빈도	N	%
독립적으로 구획한다		34	36.2
여러가구가 같이 행사를 치루어도 된다		1	1.1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59	62.8
계		94	100

선택」이 59명(62.8%)이었다.

〈표20 참조〉

● 建物外觀

외관은 93명의 응답자중 「성당이나 교회 같은 외관」이 39명(41.9%), 「상징적인 외관」이 37명(39.8%)이었다. 〈표21 참조〉 이것을 종교별로 분석하면 기독교인은 응답자 26명중 18명(69.2%)이, 천주교인은 9명중 6명(66.7%)이 「성당이나 교회같은 외관」을 선호하였고, 無敎는 응답자 42명중 22명(52.4%)이, 불교인은 14명중 8명(57.1%)이 「상징적인 외관」을 선호하였다. 〈표22 참조〉

● 建立 位置

장례의식장의 건립 위치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93명중 「교외」가 36명(38.7%), 「교통이 편리한 곳」이 30명(32.3%)였다. 〈표23 참조〉

● 설문 결과에 의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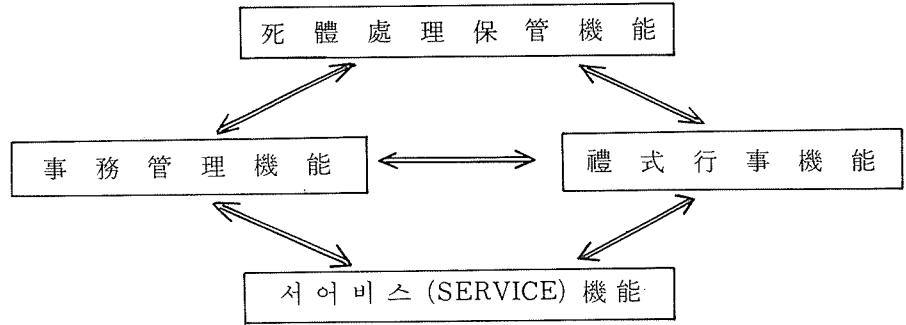
- 1) 대다수의 가정(87.1%)에서 장례를 自宅에서 치루고 있다.
- 2) 葬日은 3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殯所의 이용회수는 1개월에 10회 정도이다.
- 3) 問喪客의 수는 200명 이하(67.2%)가 가장 많고, 200명이상(32.8%)도 상당수 있으므로 殯所, 問喪客 待機室, 永訣式場 이용에 적합하도록 규모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3일장일 경우에는 제2일째 오후시간에 문상객이 가장 많이 몰리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4) 殯所는 1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獨立式과 여러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문상객 대기실을 중심으로 빈소를 배열한 配列式을 고루 설치하여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5) 장례의식장은 종교별로 별도 의식을 치를 수 있게 別棟, 層別 혹은 칸막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6) 건물 외관은 각 종교적 특성을 살린 엄숙한 외관이거나 상징적이어야 하며,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교외가 좋다.

〈표 23〉 장례의식장 건립 위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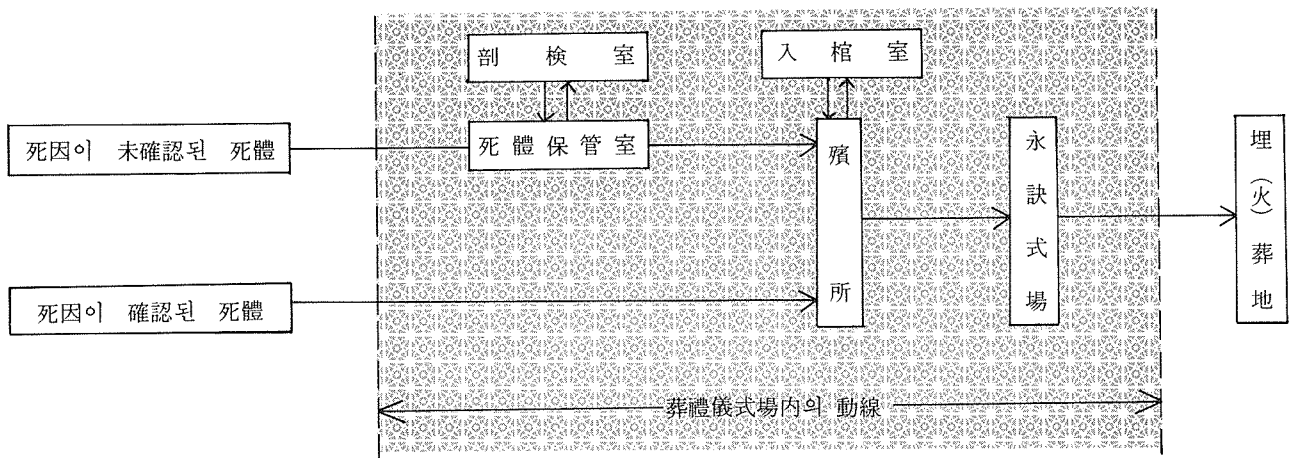
구분	빈도	N	%
집부근		13	14
시내중심가		2	2.2
교외		36	38.7
종합병원 영안실 부근		12	12.9
교통이 편리한곳 아무데나		30	32.3
계		93	100



〔그림 5〕 葬禮儀式場の機能

〈표 24〉 機能別 主要室

機能別	主要室名
사무 관리 기능	관리 사무실, 기계실, 목공실
사체처리 보관기능	사체보관실, 剖檢室, 염습실, 약품실, 의사실
예식 행사 기능	빈소, 문상객 대기실, 영결식장
서어비스(Service) 기능	식당, 휴게실, 주방



〔그림 6〕 사체의 동선도

3. 機能分析 및 動線計劃

● 기능 분석

장례의식장의 기능은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림5 참조]

- 1) 事務管理機能 : 장의예식의 예약 및 접수,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대행, 묘지 및 화장장과의 연계, 물품구매, 의식장의 보수 등 維持管理機能이다.
- 2) 死體處理保管機能 : 사체의 보관, 부검, 殮襲處理 기능이다.
- 3) 禮式行事機能 : 殯所를 포함한 永訣式場을 제공, 장례식을 거행하는 기능이다.
- 4) 서어비스(Service)機能 : 喪主, 服人 및 問喪客들에게 식사,

휴게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각 기능에 따른 주요실은 다음과 같다. (표24참조)

● 動線計劃

장례의식장에서 주요 동선은 사체의 운반 동선과 상주 및 복인의 동선, 그리고 문상객의 동선으로 구분된다.

▲ 死體의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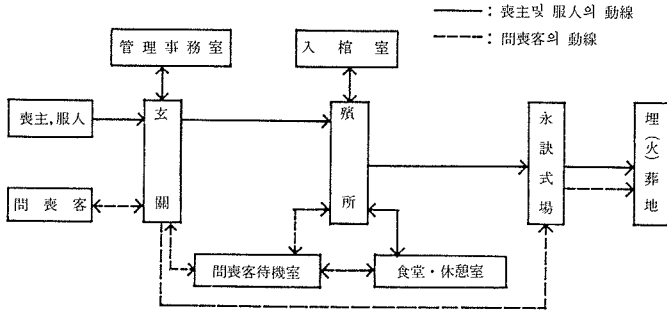
사람은 가정이나 병원에서 자연사하거나 병사한다. 또 화난이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다. 가정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간단한 收屍를 행한 후에 장례의식장에 운반되고, 병원사인 경우에는 병원 영안실에

보관되었다가 운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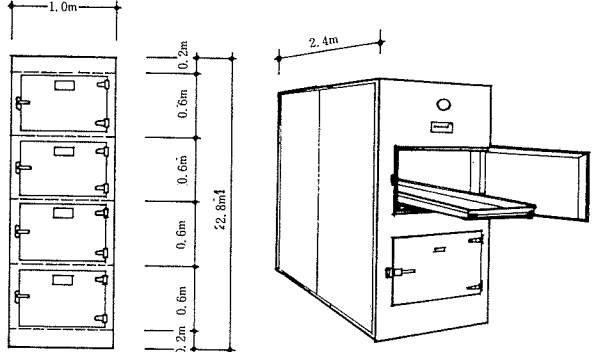
운반된 사체는 일단 예약된 빈소에 안치되었다가 임종후 24시간 경과후에 입관실에 운반하여 입관하고 다시 빈소에 안치된다. 事故死나, 死因이 미확인된 사체는 사체보관실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剖檢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행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입관하고 빈소에 안치된다. 입관되기 전의 사체는 외관상 사체전용 통로를 이용하게 한다. 빈소에 안치된 사체는 葬日의 마지막 날에 永訣式場으로 운반되어 영결식을 행하고 매(화)장을 한다. [그림6 참조]

▲ 喪主 및 服人の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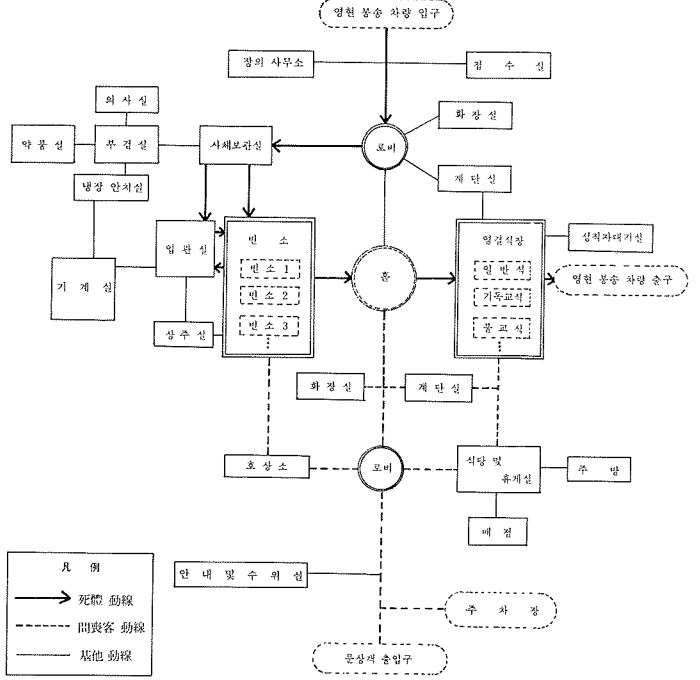
상주 및 복인은 사체를 護送하므로



[그림 7] 喪主 및 服인과 問喪客의 動線圖



[그림 9] 死體 保管 캐비넬



[그림 8] 機能 및 動線 体系圖

사체의 동선과 비슷하다. 다만 장례절차의 협의를 위한 관리사무실과의 왕래와, 빈소에서 장례기간동안 대기하므로 식당 및 휴게실과의 동선이 추가된다. [그림7 참조]

● 問喪客의 動線
문상객은 빈소에서 조문하며, 발인일에 오는 문상객은 영결식장에서 조문한다. [그림7 참조]

4. 各室의 機能 및 規模 算定

● 死體 保管室
장례의식전의 사체를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실이다. 실의 내부온도는 2℃이상 1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체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체 보관 캐비넬 (Cabinet) 을 설치한다. 사체 1구를 보관하는 캐비넬의 크기는 폭 1m, 높이 0.6m, 길이 2.4m가 필요하다. [그림9 참조] 캐비넬은 3단까지의 높이가 사용에 적절하고 최고 4단을 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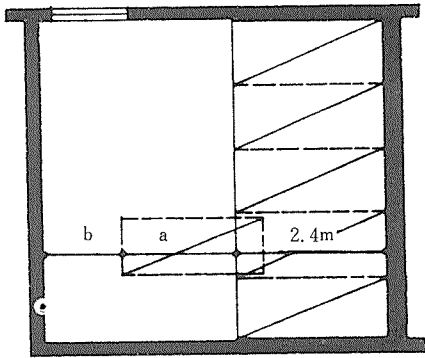
한다. 캐비넬 내부의 온도는 일시적 보관에는 4℃~5℃, 장기 보관에는 0℃~15℃가 적당하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사체가 많은 경우에는 死體冷凍保管室을 별도로 설치한다. 실의 크기는 [그림10 참조] 사체 보관 캐비넬을 열었을 때의 길이(a=최대 1.8m)를 고려하고, 사체운반 스트레처 통행에 지장이 없게 공간(b=1.2m)을 확보하고 출입구의 폭에도 유의한다.

● 剖檢室
사인의 규명 검사를 위하여 사체를剖檢하는 실이다. [그림11 참조] 중앙에 부검대를 설치하고 주위에 사체운반용 스트레처 (Stretcher) 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b=1.8m)이 필요하다.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하고, 부검을 위해 무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입관절차를 행하기도 한다. 연결하여 약품실, 剖檢器資材倉庫, 검사실, 사체 샘플 (Sample) 보관실, 의과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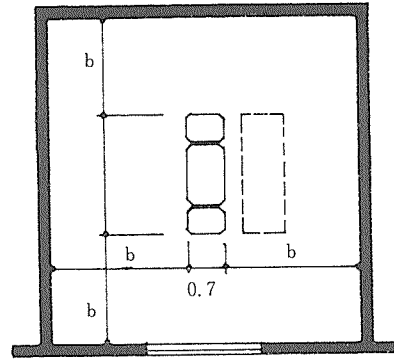
대기실 등이 있어야 한다. 사체부검을 병원등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부검에 필요한 諸室은 없어도 무방하다.

● 入棺室
상주와 복인 참관하에 사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치장하고 입관하는 실이다. [그림12 참조] 종래의 관습으로는 빈소에서 병풍을 가리고 행하였으나 위생상 좋지 못하다. 실의 크기는 사체의 주위에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연결하여 襲身 및 입관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는 창고가 필요하다. 입관시에 종교마다 의식을 행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입관예배를 하고, 불교에서는 독경을 외운다. 의식시에는 喪主와 親知, 敎友들이 참관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입관 작업을 볼 수 있도록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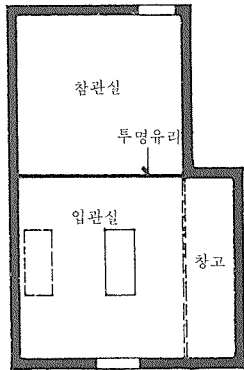
● 빈소
고인의 靈座가 설치되어 상주와 복인이 吊問을 받는 실이다. 입관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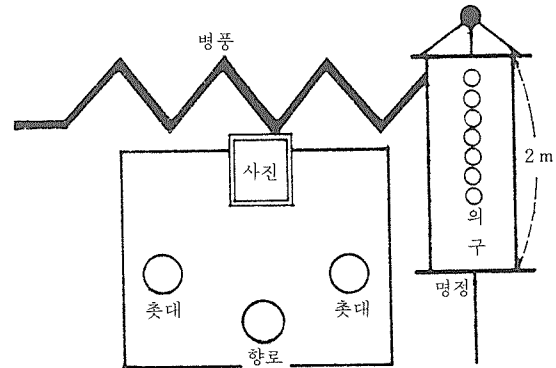
[그림 10] 사체 보관실 평면도



[그림 11] 부검실 평면도



[그림 12] 입 관 실



[그림 13] 銘旌 및 靈座

사체는 빈소의 상단에 안치된다. 이때 사체는 냉동설비가 된 透明櫥 내에 안치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체를 병풍으로 가리고, 제상위에 고인의 사진과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후 靈座를 설치한다. 영좌의 오른쪽에는 銘旌을 세운다. 靈座는 북향 배치가 원칙이다. [그림13 참조] 빈소에서 상주는 실 오른쪽서 서고, 문상객은 弔間을 한다. 유교식에서는 문상객은 영좌를 향하여 절을 하고, 곧이어 상주와 절을 한후 위로한다. [그림14 참조] 기독교에서는 교우들이 예배와 찬송을 하고 弔問할 때에는 영좌를 향하여 훈화하고 묵념한뒤 상주에게 인사를 드린다. 불교에서는 법사가 독경을 외운다. 빈소에서는 향을 피우고,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환기설비를 하고 사체가 안치되어 있으므로 위생에 유의한다. 또 호곡과 찬송, 독경을 하므로 빈소간에 방음장치를 한다. 빈소의 규모는 최소 3.6m X 3.6m가 필요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대, 중, 소 여러 규모로 설치됨이 좋다. 빈소의 배치 방법은 직렬식과 원형식 등 대지의 형상 및 평면계획에 따라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림15, 16 참조] 빈소마다 문상객 대기실이 전용으로 부속되는 독립식과 문상객 대기실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빈소가 설치되는 배열식이 있다. 독립식과 배열식도 이용자의 요구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안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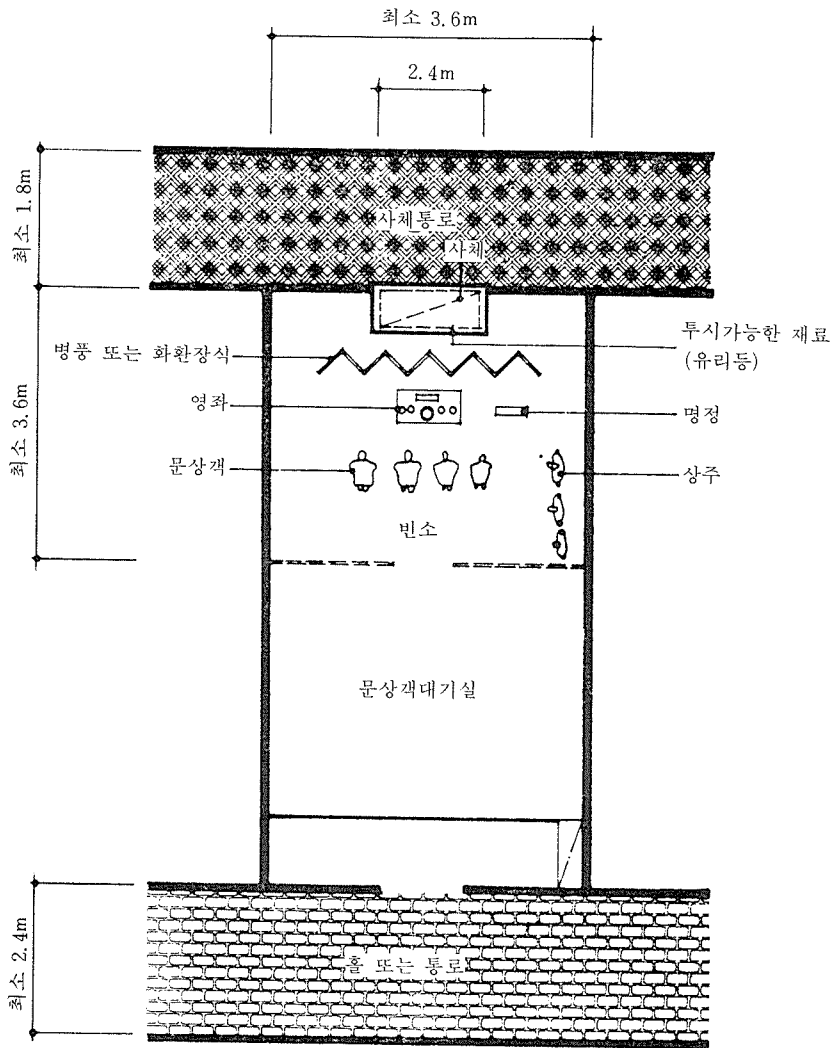
● 문상객 대기실

문상객들이 弔問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친지나 복인들이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밤샘을 하거나, 상가의 일을 돕기 위하여 대기하는 실이다. 이를 위하여 식당이나 휴게실이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15,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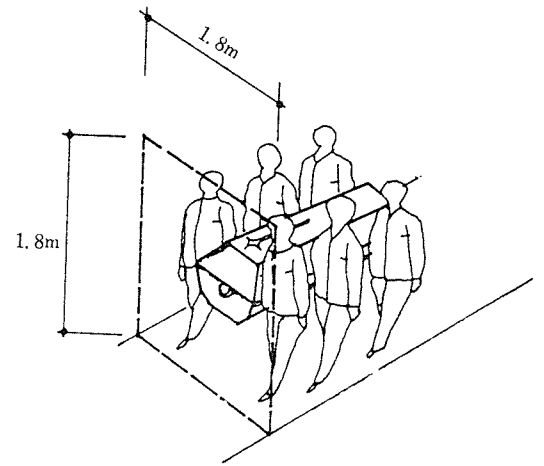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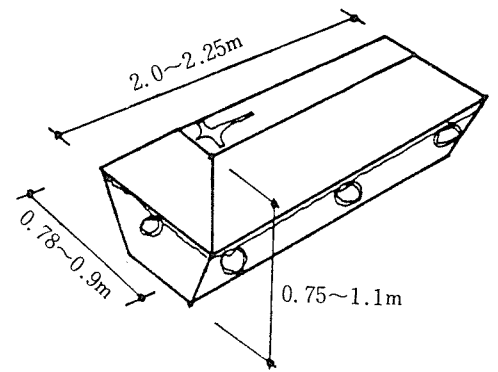
● 영결식장

장례의식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다. 이때에는 고인의 생시에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인다. 靈柩를 식장의 전면에 안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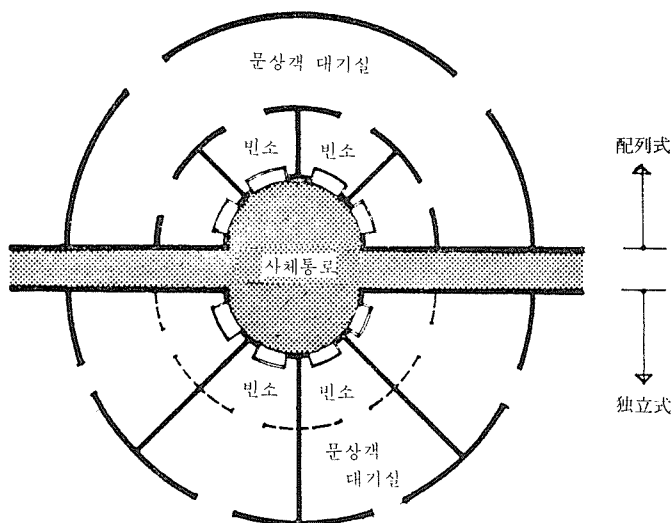
祭床에 고인의 사진, 촛대, 향로, 향합을 배열하고 銘旌을 세운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배치하고, 불교에서는 五方幡를 세운다. 의식의 순서와 내용은 종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家庭儀禮遵則에서는 개식, 주상 및 상제의 분향, 배례, 고인의 약력보고, 弔辭, 조객 분향, 호상인사, 폐식의 순이고, 기독교의 영결예배는 묵도, 기원, 찬송기도, 성경봉독, 설교, 기도 양력보고, 弔辭(혹은 弔歌), 광고, 찬송, 축도, 獻花이며, 불교식은 개식, 新圓寂某靈, 독경, 제문낭독, 燒香의 순이다. 모든 의식절차가 끝난 다음에 出棺하게 되는데, 靈柩를 앞세우고 조객들이 식당 밖으로 행렬지어 나가므로 중앙 통로는 넓게 계획되어야 한다. 식당의 내부 구조 및 규모는 결혼식장에 기준한다. 종교별로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못할 경우는 전면의 배경을 좌우로 바꾸어 종교별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식이 끝난 후에 매(화)장지로 운구하여야 하므로 넓은 실외공간과 주차장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림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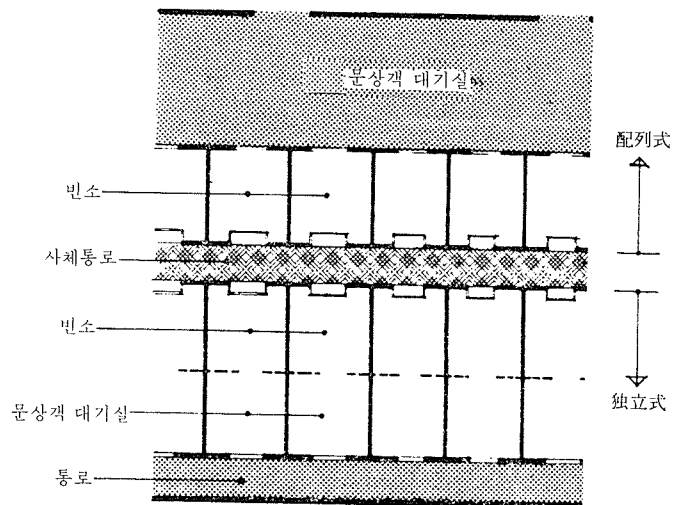
[그림 14] 빈소 평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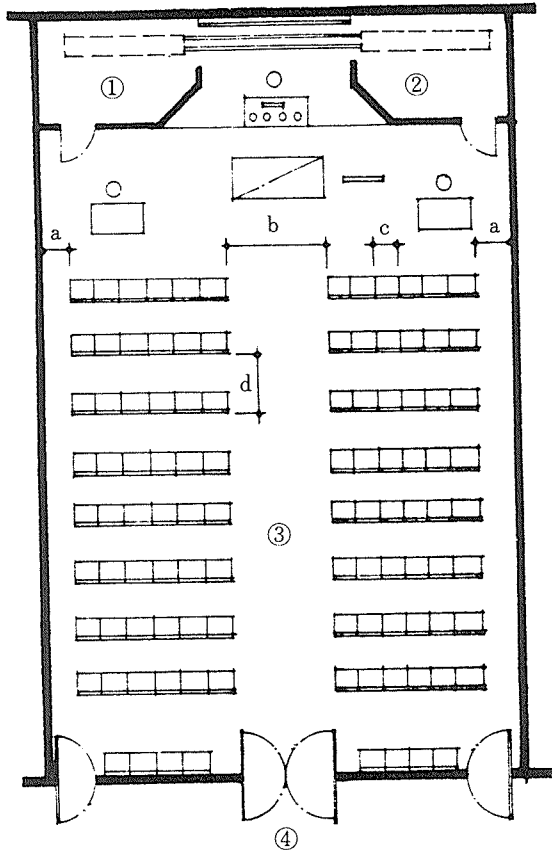
[그림 17] 棺 및 運柩에 필요한 최소폭



[그림 15] 원형식 평면 개념도



[그림 16] 직렬식 평면 개념도



a : 0.6m
 b : 2.4m-3.0m
 c : 0.45m

- ① 기독교식 배경창고
- ② 불교식 배경창고
- ③ 참배객석
- ④ 홀

[그림 18] 영결식장 평면도

[표 25] 지역별 장례의식장의 건립가능여부

구 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지지역	
	주거 전용	주거	준주거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건립 가능 여부	×	×	×	×	×	○	○	○	×

5. 該當法規 檢討

지금까지는 葬禮儀式場의 用途에 대한 規定이 건축법에 없었으나, 개정된 건축법(86.12.29)에 의하여 묘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었다.

묘지 관련 시설은

- ① 화장장
- ② 납골당
- ③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④ 장례식장이다.

도시 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따른 장례의식장의 건립가능 여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25 참조>

IV.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근래에 와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장례의식을 주거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왔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사망자수도 급증할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거내에서의 장례의식을 고수하는 주된 요인은

- 1) 장례는 부모에 대한 효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외에서의 거행이 불효라는 의식이 잠재하고,
 - 2) 실질적 이용 가능한 장례의식장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공간개념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 가까운 장래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그 이용이 생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이면서도 전통의 예를 존중할 수 있는 장례의식장의 건축계획적 기본요소를 요약하면,

- 1) 장례의식장내부 공간에서는 가정에서 치루는 장례의식의 개념을 살려 機能的, 衛生的, 經濟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2) 장례 절차는 家庭儀禮遵則을 기준하면서도 각 종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 3) 象懲的이고도 엄숙한 형태를 건물외관으로 도입하고,
- 4) 도시 계획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거나, 가까운 교외가 적합하며,
- 5) 건축 및 도시계획법에서 이와 같은 용도건물에 대한 건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完)